

전자수출 천억달러 달성 팹리스기업의 역할



이 성 민
엠텍비전 대표

2005년 12월 한국의 전자수출 규모는 천억을 달성한 바, 전자산업은 이미 한국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없다. 전자수출 천억불 달성의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있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두 종류로 분류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그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했다면, 최근에는 국내 팹리스기업들의 고속성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자수출 천억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는 핵심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회로 설계기술이 필요하며,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비메모리반도체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성장신화를 일구어 내며 새로운 산업군을 창출해냈다.

2000년도까지 수출주요품목에 메모리반도체는 1위를 차지한 반면, 비메모리반도체는 사람들에게 인식조차 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비메모리반도체는 전자수출품목 3위 달성이라는 위

팹리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해서 내어 놓은 수 많은 제품들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 왔다.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유비쿼터스 세상, 그 핵심에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열정이 있고, 그러한 열정은 한국을 전자수출 강국으로 만드는 윤활유가 되어 줄 것이다.

업을 달성했다.

IMF 전후로 연구원 출신의 CEO들이 속속 벤처를 창업하면서, 자본금도 연구기반도 정부지원도 부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 낸 일이라 더욱 값진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의 성장은 주요 전자제품의 부품을 국산화로 대체시키면서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최근 새로 정비된 u-IT839의 보면 9대 신성장 동력 중 IT SoC분야가 선정된 이유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여 정보통신 일등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전자수출 천억불 달성 기념행사에서는 매년 10월 전자의 날 제정 및, 2015년 전자수출 3천억불 달성하여 디지털 3대 강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전세계 사람들의 손안에, 집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고 감동적인 일이다.

팹리스 기업들이 이러한 성장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길을 가야 한다. 국산부품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초일류 팹리스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한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팹리스 기업들이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무한한 꿈을 설계기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탐구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의 광고문구처럼 기술은 사람을 앞서지 못한다. 그러나 기술은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다. 모든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분명 사람이 있을 것이다.

팹리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해서 내어 놓은 수 많은 제품들도 결국은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 왔다.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유비쿼터스 세상, 그 핵심에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열정이 있고, 그러한 열정은 한국을 전자수출 강국으로 만드는 윤활유가 되어 줄 것이다. **㊤**